

기혼여성의 자기지각이 혼외관계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TV 불륜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이 미치는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희진
한동대학교 언론정보문화학부

The Effect of Married Women's Self-Awareness on the Acceptance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Focused on the Mediated Effect of Individuals' Criticism of TV drama regarding Infidelity

Hee-Jin Lee
School of Communication Arts & Science, Handong Glob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여성들의 혼외관계 수용성에 자기지각이 미치는 영향에 TV 불륜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위해 기혼여성(3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델(SEM: Structural Equational Model)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밝혀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들은 혼외관계 수용성(Mean=2.6346, 5점 척도)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전체 응답자들 중에서 혼외관계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응답자는 46.7%였다. 혼외관계에 대해서 불분명한 입장을 보여준 응답자들이 43.8%였고, 혼외관계에 수용적인 입장을 보인 응답자들도 약 10%정도 되었다. 혼외관계문제가 기혼여성들에게 중요한 현실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둘째, 기혼여성의 '혼외관계 수용성'에 '자기지각성'은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불륜을 주제로 한 TV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을 완전매개(full mediation)로 하여, '자기지각성'은 '혼외관계 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졌다. 기혼여성들이 불륜 TV 드라마의 콘텐츠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기혼여성들이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측면임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며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the effect of married women's self-awareness on the acceptance of extra-marital relationships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individuals' criticism of television's drama about infidelity. The data was obtained by conducting a survey of married women (304 persons) and was analyzed based on the Structural Equal Model (SEM). The notabl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pondents are generally less receptive to extramarital relationships. Of the total respondents, 46.7% do not accept extramarital relations. 43.8% of the respondents showed an unclear position on extra-marital relationships, and about 10% of respondents showed an accepting position on extramarital affairs. This suggests that extramarital relationships can emerge as a real issue that is important for married women. Second, self-awareness does not directly affect married women's acceptance of extramarital affairs, however, 'self-awareness' prove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acceptance to extramarital relationships' by using 'criticism' as a full mediation effect for affair-themed TV dramas. The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and the judgment of married women on the content of TV dramas containing adultery has been confirmed to be a very important aspect of married women's understanding of extramarital relationships. Some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based on this study's findings.

Keywords : Extra-Marital Relationship, Criticism of TV Drama, Infidelity, Self-Awareness, Married Women

이 연구는 한동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 제20180112호에 의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Hee-Jin Lee(Handong Global Univ.)

email: hjlee@handong.edu

Received December 3, 2019

Revised December 30, 2019

Accepted February 7, 2020

Published February 29,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불륜은 TV 드라마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인기 단골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불륜을 주제로 한 첫 TV 드라마는 1969년 MBC의 <개구리 남편>이다. 이후 불륜을 주제로 한 TV 드라마가 연이어 제작되었고, 많은 TV 드라마(청춘의 뗏, 모래성 등)가 시청자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아왔다. 불륜 드라마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루며 비극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극적 소재로서 매력적이다[1-2]. 결혼제도 규범의 일탈인 혼외 관계를 다룬 TV 드라마들은 한국방송통신 심의위원회(KCSC)로부터 제재를 받기도하고 조기중단이 되는 등 사회적 파장도 있었다[1]. 1980년대 이후부터는 TV 드라마에서 불륜에 대한 허용도가 높아졌다[3]. 이러한 변화는 불륜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과 개인들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1].

불륜을 주제로 한 TV 드라마에 대한 관련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륜을 다룬 TV 드라마에 대한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드라마의 불륜소재 및 내용 자체에 대한 탐색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불륜 TV 드라마가 시청자들의 혼외관계 인식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간과되었다[1,3]. 안미숙은 한 편의 드라마(장밋빛 인생, KBS)에 초점을 둔 분석을 통해, 여성 시청자의 수용행태를 탐색하였다[4]. 이 연구는 시청자의 연령대 별로 불륜에 대한 입장을 파악하였는데, 불륜 TV 드라마에 대한 여성 시청자의 인식을 이해를 돕는 개척연구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주로 빈도분석과 같은 기초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법론적 한계점을 가진다. 혼외관계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불륜 TV 드라마가 미치는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분석에 기초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영상매체가 개인의 폭력성 및 성적 충동 및 행위를 증가시킬 수 있음은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5-6]. 영상매체의 영향은 기존의 의식이나 태도와 같은 개인의 성향(predisposition)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TV 드라마의 주요 시청자군인 기혼여성들이 불륜 TV 드라마의 내용에 대해 얼마만큼 수용적(혹은 비판적)인지가 개인의 혼외관계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6]. 이러한 추론은 불륜 TV 드라마 텍스트의 영향이 이를 시청한 기

혼여성들의 혼외관계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 또는 개조시킬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자기지각능력은 불륜 TV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비판 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러한 자기지각 능력은 혼외 관계에 대한 생각과 판단에도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자기 지각이론가들은 사람들은 의식상태에서 자신의 생각, 행동 등과 같은 내부대상과 함께 타인, 대중매체와 같은 환경과 같은 외부대상에 집중(attention)한다고 하였다[7-8]. 자기지각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기혼여성들의 자기지각성은 불륜 TV 드라마 내용에 대한 비판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자기지각성은 이들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혼외관계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륜 TV 드라마 텍스트에 대한 비판의식에도 유의미한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도출해볼 수 있다. 자기지각성은 불륜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행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혼여성들의 자기 지각성이 이들의 혼외관계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에 불륜 TV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해볼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자료분석 연구이다. 기혼여성들의 혼외관계 인식을 파악하고, 이들의 자기지각 수준이 혼외관계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고, 기혼여성들의 자기지각 수준이 혼외관계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이들이 시청한 불륜 TV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이 미칠 수 있는 매개효과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불륜의 개념

탈관습적인 의미를 지닌 불륜(infidelity)은 합법적인 결혼을 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혼외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1-2]. 혼외관계는 법률적인 의미의 간통(adultery)과 사회학적 개념인 혼외 성관계와 같은 협의의 개념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혼외관계에서 성적인 문제를 중요한 바로미터로 인식하고 있지만,

Glass와 White, 그리고 Harley 등은 혼외관계의 개념에 정서적 외도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9-10]. Glass와 White 는 배우자 외의 이성과의 깊은 정서적 관계는 육체적인 성적 관계로 진전될 수 있고, 특히 정서적 관계를 증시하는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육체적, 성적 외도에만 초점을 둔 혼외관계 연구는 결혼생활의 문제점이나 혼외관계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1,9].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혼외관계의 개념은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의 정서적 외도와 성적 외도를 모두 포함한다.

2.2 TV 드라마의 특성 및 영향

TV는 사람들에게 사회현실에 대한 지각에 폭넓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 정보원이다[11]. 텔레비전이 우리사회의 명백한 현실성을 표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표면의 기저에 깔린 심층적인 가치와 관계의 구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1,12]. TV 드라마는 매우 인기 있는 장르로 시청자들로 하여금 많은 담론을 생산하게 하기도 한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동시대의 문화 속에서 매일 매일의 내러티브의 원천이자 생성원으로 간주할 수 있어, 그 사회적 의미가 크다[1].

미디어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의 상호관계와 행동의 척도를 만들어 내고 제어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심리적,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13]. 영상매체 유해론의 대표적인 이론인 '사회학습이론적 관점'을 다룬 선행연구에서 영상매체가 전달하는 폭력물 및 성적 영상물의 시청이 학습과정을 통해 모방, 학습 또는 동기유발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6]. 해당 연구는 영상매체의 성표현 장면이 청소년의 성적 충동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음 또한 밝힌 바 있다[6].

반면, '심리적 정화이론'은 영상매체의 무해론을 지지하는 이론이다 '정화'(catharsis)란 '정서적 이완'으로 자극을 발산하는 것을 의미한다[14]. Freud와 McDougall, Lorenz 등은 학자들은 인간은 죽음(파괴)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억압된 증오심과 분노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분출해야 한다고 하였다[6,15]. '정화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영상매체의 성적 장면시청을 통해서 성충동이 발산되어 정화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성충동 또는 성행동 유발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6]. 부가하여, 심리적 정화이론은 영상매체(media)의 효과는 영상매체의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매개요인들에 의해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함께 시사한다[6]. Berkowitz는 영상매체의 공격적인 영향은 청소년들에게 공격적인 사고를 증가시켜 더욱

더 공격적으로 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면서 영상매체의 '점화효과'(priming effect)를 강조하였다[5].

사회학습이론, 심리적 정화이론 또는 점화효과이론 등은 영상매체의 영향이 개인의 기존의식 및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거나 개조하기 보다는, 기존의식이나 태도와 같은 개인의 성향(predispositio)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6]. 앞서 논의한 이론들을 토대로, 불륜 TV 드라마는 개인의 가치 및 태도와 같은 기존의식과 함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에 직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2.3 개인의 자기지각성과 미디어 비판의식

자기지각이론은 사람들은 의식적인 상태에서 외부상(다른 사람, 대중매체 등 과 같은 환경) 및 내부대상(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외모 등과 같은 자아)에 집중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7-8]. 이러한 개인의 지각성은 개인이 TV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드라마 내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게 되는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자기지각 수준이 양호한 사람이, 혼외관계와 같은 사안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경우,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기혼여성들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은 이들의 자기 지각성에 의해서 유의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전술한 논의점을 토대로, 불륜 TV 드라마에 대한 기혼여성들의 비판의식은 개인의 자기지각성이 혼외관계 인식(혼외관계 수용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매개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요인(mediator)로 작용할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도출해볼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기혼여성들은 혼외관계에 대해 얼마만큼 수용적(혹은 비판적)인가?
- 연구문제2. 기혼여성의 혼외관계에 이들의 자기 지각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3. 불륜 주제 TV 드라마에 대해 기혼여성들은 얼마만큼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연구문제 4. 불륜 주제 TV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은 이들의 자기 지각성이 혼외관계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유의미하게 매개하는가?

전술한 연구문제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분석할 주요 변인들(자기 지각성, TV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 혼외관계 수용성)의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에 대한 경로들(paths)을 도식화한 연구모형을 아래 Fig. 1에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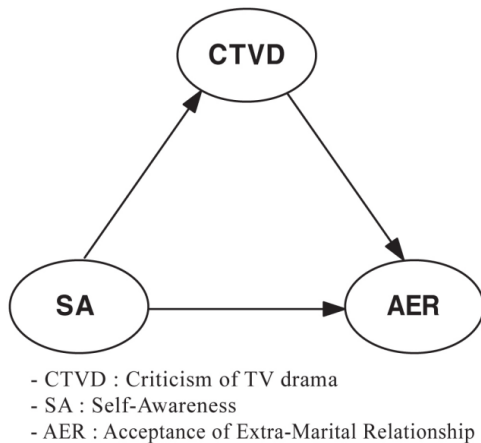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Analysis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설문조사를 통해 얻었다. 설문조사는 2019년 10월 7일부터 약 2주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인터넷 서베이(survey) 업체의 유료패널에 등록된 기혼여성들이며, 조사응답자들은 본 설문조사에 관심을 가지고 전국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다. 본 자료분석에 사용한 최종 표본 수는 304명이다.

3.3 주요변수 및 측정도구

3.3.1 독립변수: '자기 지각성'(SA:Self-Awareness)

자각성은 "개체가 개체-환경의 장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내적, 외적 사건을 지각하고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16-17]. 자기지각성 척도는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영성 척도의 주요 하위척도인 자기지각 척도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17]. 척도문항(5문항, 5점 척도) 내용은 대인관계, 일어난 일, 나의 생각 및 느낌, 육체적, 정신적 현상, 벌어지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만큼 알아

차리고 파악하는지 등을 평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리커트 방식의 5점 척도(1=거의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자들은 각 문항 내용에 어느 정도 동의(혹은 부동의)하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지각성이 보다 더 양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척도문항들 간의 내적 일치도를 토대로 척도의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Cronbach's α 값은 .805이다.

3.3.2 매개변수: TV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

(CD: Criticism of TV Drama)

TV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 척도는 불륜 TV 드라마에 초점을 둔 척도이다. 이 척도는 불륜(외도)을 주제로 한 TV 드라마의 콘텐츠에 대해서 응답자들(기혼여성들)이 얼마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한 척도이다. 척도 문항(3문항)의 내용은 불륜 및 외도의 지나친 미화, 불륜 및 외도를 부추김, 불륜과 같은 자극적인 소재로 가정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음 등에 대한 지적에 응답자가 어느 정도 동의(혹은 부동의)하는지를 평가하였다. 이 척도는 Hudson이 발표한 성태도 척도(Sexual Attitude Scale)의 문항 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18]. Cronbach's α 값은 .714이다.

3.3.3 종속변수: 혼외관계 수용성(AER: Acceptance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혼외관계 수용성은 자신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갖는 혼외관계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척도이다. 척도문항(3문항) 내용은 Thompson이 제시했던 세 범주의 혼외관계(정서적인 것, 성적인 것, 정서적이고 성적인 것 등) 유형을 토대로, 각 혼외관계 유형(정서적 혼외유형, 신체적 성적 혼외유형, 혼합형 등)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어느 정도 수용하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19]. 이 척도는 관련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이다 [20]. 5점 척도로,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혼외관계를 수용하는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척도문항들 간의 내적일치도(신뢰도)의 Cronbach's α 값은 .761이다.

3.4 분석방법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간의 직·간접효과를 검증은 구조방정식모형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AMOS 23.0을 사용하여 자료(data)

를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절대적 합지수(RMSEA)와 상대 적합지수인(CFI, TLI)를 제시하였다. 매개효과분석은 편향(bias)을 수정한 부트스트래핑(bias-corrected 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주요변수들의 특성

주요 세변수를 평가하는 각 척도는 모두 5점 척도이다. 세 척도의 평균값(표1)과 빈도분석결과(표 2)를 토대로 세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세 변수를 평가하는 각 척도는 모두 5점 척도이다. '자기 자각성'(M=3.7160), '불륜 TV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M=3.7634)은 척도의 중간값(3점)은 넘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수준(4점 이상)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외관계 수용성'(M=2.6346)은 척도의 중간값 보다 낮지만, 혼외관계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수준(2점 이하)보다는 높은 점수이다(연구문제 1).

Table 1. Means of Major Variables (N=304)

Variables	Mean	SD
SA(Self-Awareness)	3.7160	.53823
CTVD(Criticism of TV Drama)	3.7634	.63214
AER(Acceptance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2.6346	.99767

Table 2. Frequencies of Major Variables. (N=304)

Variables	Categories (5 point scale)	N(%)
SA (Self-Awareness)	= < 2	3(1%)
	2>, <4	164(53.9%)
	= < 4	137(45.2%)
CTVD (Criticism of TV Drama)	= < 2	6(2%)
	2>, <4	153(50.2%)
	= < 4	145(47.7%)
AER (Acceptance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 < 2	142(46.7%)
	2>, <4	132(43.8%)
	= < 4	30(9.9%)

'혼외관계 수용성'(M=2.6346)은 척도의 중간값 보다 낮지만, 혼외관계를 수용하지 않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들 중에 약 46.7%(142명)로 나타났다. 혼외관계에 대해 다소 불분명한 입장을 보인 응답자들도 43.7%(142명)였고, 약 9.9%(30명)는 혼외관계를 수용하는 혼외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혼외관계를 낙인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적지 않은 기혼여성들이 있음을 시사해준다(연구문제 1).

'자기 자각성'(M=3.7160)과 '불륜 TV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M= 3.7634) 척도의 평균값은 척도의 중간값(3점)은 넘었지만 양호한 수준(4점 이상)에는 다소 못 미친다(연구문제 3). 자기 자각성 수준이 저조한 응답자는 극소수(3명, 1%)이고, 자기 자각성이 수준이 양호한 응답자들은 전체응답자들 중에 45.2%(137명) 정도이다. 나머지 약 53.9%(164명)의 자기자각성 수준은 저조하지도 양호하지도 않은 편이다. 불륜 TV드라마 내용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는 응답자(2%, 6명)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응답자들 중에 거의 절반(153명, 50.2%)은 불륜 TV 드라마에 대해 비판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다소 불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약 47.7%(145명)가 불륜 TV 드라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연구문제 3).

4.2 측정변인들의 정규성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 세변수(세 척도)를 평가하기 위한 각 척도를 각각 구성하고 있는 측정지표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왜도는 -.894-.677로 절대값 2를 초과하지 않았고, 첨도도-1.061~1.556 으로 절대값 7 미만이어서 일변량 정규성이 인정되었다.

4.3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변수들의 요인적재량이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적합도($\chi^2=90.513$, $df=51$, $p.001$, $CFI=.965$, $TLI=.955$, $RMSEA=.051$)으로 기준을 충족하여, 개별 측정항목들의 구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표 3).

Table 3. Factor Loading of Measurement Model (N=304)

Latent Variables	Indicators	Parameter		S.E	C.R	P	SMC
		B	β				
SA	1	.547	1.000				.505
	2	.646	1.178	.146	8.084	***	.679
	3	.694	1.228	.146	8.424	***	.482
	4	.824	1.540	.170	9.084	***	.418
	5	.711	1.409	.165	8.535	***	.299
CTVD	1	.687	1.000				.473
	2	.671	1.029	.117	8.788	***	.450
	3	.705	1.047	.117	8.983	***	.498
	4	.529	.747	.101	7.403	***	.280
AER	1	.493	1.000				.243
	2	.954	1.937	.242	8.009	***	.910
	3	.806	1.679	.193	8.691	***	.649

***p<.001, **p<.01, *p<.05

4.4 모형분석

‘자기 지각성→혼외관계 수용성’ 경로(12)는 유의하지 않았다. 개인의 혼외관계수용성은 자기지각성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연구문제 2). 그러나 ‘자기 지각성→TV드라마 비판의식’(188***), 그리고 ‘TV드라마 비판의식→혼외관계 수용성’(-.262***), 이 두 경로는 모두 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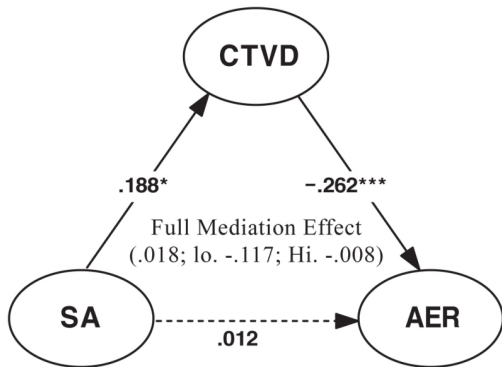


Fig. 2. CTVD Mediating Effect between SA and AER

개인의 자기 지각성이 높을수록 불륜 TV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 또한 높고, 불륜 TV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이 높을수록, 혼외관계를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Table 4. Direct Effect and Indirect Effect of Variables

Direct Effects	B	β	SE	C.R/P.
SA→CTVD	.188	.277	.110	2.520*
CTVD→AER	-.262	-.263	.078	-3.367***
SA→AER	.012	.017	.097	.177
Indirect Effect		B	β	C I
SA→(CTVD)→AER	.018	.016		lo -.117; Hi-.008 (Sig.)
Model Fitness		χ²=90.513, df=51, p.001 TLI=.955, CFI=.965 RMSEA=.051		

***p<.001, **p<.01, *p<.05

개인의 혼외관계 수용성에 자기 자각성이 미치는 영향에, 불륜 TV드라마에 대한 개인의 비판의식’은 유의한 매개효과(.018; Lo. -.117, Hi. -.008)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는데, 분석한 결과, 완전매개(full mediation)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연구문제 4). 자기 자각성은 개인의 혼외관계인식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지만, 불륜 TV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결과적으로 자기자각성이 혼외관계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Table 5. 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s between Parameters

Variables	SA→CTVD	CTVD→AER	SA→AER
SA→CTVD	.000		
CTVD→AER	-4.072	.000	
SA→AER	-1.839	2.048	.000

모형에 포함된 세 직접경로들 중에서 유의한 것으로 밝혀진 ‘자기 지각성→TV드라마 비판의식’ 경로(188***)의 직접효과와 ‘TV드라마 비판의식→혼외관계 수용성’ 경로(-.262***)의 직접효과와 크기를 비교해보기 위해서, 계수차이검증(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s between parameters)을 실시하였다. 이는 각 경로의 직접효과 계수값이 수학적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계수차이검증 결과, ‘TV드라마 비판의식’이 개인의 ‘혼외관계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262***)가 개인의 ‘자기 지각성’이 ‘TV드라마 비판의식’에 미치는 효과(188***).보다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표 5).

5. 결론 및 제언

5.1 요약정리

자료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주요 사실들을 요약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조사응답자들인 기혼여성들의 혼외관계 수용 수준($M=2.6346$, 5점 척도)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연구문제1). 혼외관계를 수용하지 않는 응답자가 약 46.7%(142명)이었다. 상당수(43.7%, 142명)의 응답자들은 혼외관계에 대해 다소 불분명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응답자들 중에 약 9.9%(30명)는 혼외관계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혼외관계를 수용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기혼여성들이 혼외관계를 낙인적 시각에서만 판단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해준다(연구문제 1).

둘째, 불륜을 주제로 한 TV 드라마에 대해서 기혼여성들은 비판의식($M=3.7634$)은 중간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이다(연구문제 3). 응답자들 중에 거의 절반(153명, 50.2%)은 다소 불분명한 입장을 보였지만, 약 47.7%(145명)가 불륜 TV 드라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적인 것으로 밝혀졌다(연구문제 3).

셋째, 기혼여성들이 혼외관계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지 여부는 이들의 자기 지각성에 의해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연구문제 2). 그러나 불륜을 주제로 한 TV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의 완전매개효과가 입증되어, 기혼여성들이 자기 자각성이 혼외관계 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게 하는데 불륜 TV 드라마에 대한 기혼여성들의 비판의식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연구문제 4). 자기 자각성이 높을수록 불륜 TV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도 증가할 수 있고, 불륜 TV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이 높을수록, 혼외관계 수용성이 감소하는 현상은 더욱 더 뚜렷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혼여성들이 불륜을 소재로 한 TV 드라마의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이들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5.2 실천적 함의

주요 발견점을 토대로, 실천적 함의를 모색하고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불륜을 주제로 한 TV 드라마 내용에 대한 기혼여성들의 비판의식은 기혼여성들 자신의 혼외관계에 대

한 인식에 직·간접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기혼여성들 간의 인식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혼외관계를 기혼여성들이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성문제로 간주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둘째, 불륜을 주제로 한 TV 드라마 시청 자체가 혼외관계에 대해 기혼여성들이 보다 수용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데 기여하는 요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불륜 TV 드라마 방송을 억제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불륜현상 증가를 막고 혼외관계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기혼여성들의 혼외관계에 대해 수용적인 인식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륜 드라마 시청행위 그 자체가 아닌, 불륜 TV 드라마를 시청한 기혼여성들이 그 드라마의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에 달린 것이다. 불륜 TV 드라마 방영 자체를 억제하는 것 보다는 이러한 TV 드라마의 시청자들이 드라마의 내용의 허구와 현실을 분별하는 합리적인 사고와 미디어의 영향에 대한 비판의식을 높일 수 있는 미디어리터러시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TV에 방영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중들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분석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TV에서 나오는 이야기니 사실일 것이다'라는 식의 주관적 믿음을 가지기 쉽다. 불륜드라마 또한 작가적 상상력과 극적효과를 위한 구성이라는 인식보다 현실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 드라마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쉽게 가진다. 실제 현실에서 그런 일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더라도 매일 혹은 매주 방영되는 불륜드라마로 인하여 해당 소재가 본인의 삶에서 매우 익숙하게 느껴지고 그로 인하여 본인의 삶에 영향을 받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는 불륜 드라마 시청 자체의 문제가 아닌 미디어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리터러시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이미 초중고교 교육현장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시도되고 있지만 성인이 된 시청자층은 이러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이 없었다. 그렇기에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관련 학계와 방송계가 협력하여 개발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셋째, 혼외관계 문제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들에 대한 관련 전문 영역(사회복지, 가족상담 및 치료)에서 이들을 원조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개인단위의 심층 상담 서비스도 필요하지만, 혼외관계라는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이로 인해 겪는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지닌 당사자들(기혼여성 혹은 남성들)이 함께 소집단 모임을 통해서, 혼외관계와 관련 된 제 문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강화시킬 수 있는 소집단 활동(small group work)을 병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접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불륜을 소재로 한 영상자료(영화, 드라마)를 이용하여, 집단 구성원들이 함께 시청하면서, 드라마 내용에 대해서 집단 구성원들이 활발하게 토론하며 의견을 교류하며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소집단 활동은 유사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집단 구성원들은 쉽게 공감할 수 있고, 상호 지지적일 수 있다. 이러한 소집단이 가지고 있는 힘이 집단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자기개방(self-disclosure)를 용이하게 하여 자기방어적이지 않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소집단 구성원 개개인들이 허심탄회하게 숨겨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토로하는 정화(catharsis)경험 자체가 강력한 치료적인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혼여성들의 혼외관계 수용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륜 TV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기 자각 능력에 의해 유의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전술한 소집단 활동은 소집단에 참여한 구성원들에게 내부 대상(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 및 외부대상(다른 사람, 대중매체 등 과 같은 환경)에 대해 보다 더 집중(attention)할 수 있는 자기 지각능력을 높이는데도 유용한 접근이 되리라 생각한다[7-8].

5.3 제언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설정된 연구목적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혼외관계 인식을 탐색함에 있어서,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탐색이 없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연구에서는 연령대, 학력, 사회경제적 배경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뿐 만 아니라, 신체적 매력(외모), 결혼적용 및 만족, 기타 심리적 특성(자율성, 개방성 등) 등을 함께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References

[1] Y. Kim, A Study on Social Transition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in TV Drama : Based on the 3 Major

Broadcasting Companies, Ph.D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of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Seoul, Korea, 2016.

- [2] H. Won,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ing Values of Korean Society and TV Melo Drama,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of The Graduate School of Mass Communication, Seoul, Korea, 1996.
- [3] S. Y. Moon, "Changes in the Method of Use and Discountment of Advertisement in TV drama", Journal of Korean Culture, Vol.41, pp.157-187, 2018. <http://www.riss.kr.libproxy.knu.ac.kr/link?id=A105358406>
- [4] M. S. Ahn, Female Audience's Reading of Inappropriate Relationship on Television Drama: In Case of Korean Drama "The Rosy Life",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of The Graduate Schoo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eoul, Korea, 2006.
- [5] L. Berkowitz, "Some effects of thoughts on anti-and prosocial influences of media events: a cognitive-neoassociation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95, No.3, pp.410-428, 1984.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95.3.410>
- [6] H. K. Lee, "A Study of the Influence of Being Exposed by Image Media on Juvenile Sexual Behavior", Journal of Apostolic Theory, Vol.1, pp.123-165, 1998. <http://www.riss.kr.libproxy.knu.ac.kr/link?id=A30008366>
- [7] Duval, S., & Wicklund, R. A. A theory of objective self awareness, p.238, NY: Academic Press, 1972. ISBN: 0122256506
- [8] P. J. Silvia, T. S. Duval, "Objective self-awareness theory: Recent progress and enduring problem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Vol.5, No.3, pp.230-242, 2001. DOI: https://doi.org/10.1207/S15327957PSPR0503_4
- [9] S. Glass, L. White, "Justifications for Extramarital Relationships : The Association between Attitudes, Behaviors, and Gender", The Journal of Sex Research, Vol.29, No.3. pp.361-387, 1992. DOI: <https://doi.org/10.1080/00224499209551654>
- [10] W. F. Harley Jr., His Needs Her Needs: Building an Affair-Proof Marriage. P.240, Revell Co, 2011. ISBN: 0800719387, 9780800719388
- [11] B. K. Cha, Mass Communication Effect Theory, p.444, Nanam Press, 2003. ISBN : 9788930031509
- [12] J. Fiske, J. Hartley, Reading Television, p.246, hyeon-dae mihagsa, 1997 ISBN10: 897727026X
- [13] M. McLuhan,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 of man, p.616, Critical Edition, Gingko Press, 2003. ISBN : 9781584230731
- [14] Aristoteles, De Arte Poetica, p.96, Oxford Press, 1964. ISBN: 9780198145646
- [15] G. Yoon, "The Impact of the Violence of Mass Media

- on the Adolescent - The Experimental Approach of the Social Cognitive Theory",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Vol.2, No.2, pp.53-94, 1991. ISBN: 1225-7559
- [16] J. G. Kim, Gestalt Therapy, p.454, Seoul: Hakjisa, 1995. ISBN: 8975480526 93180
- [17] G. Y. Lee, J. H. Kim, D. W. Kim, "Development of the Spirituality Sca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5, No.4, pp.711-728, 2003.
UCI : G704-000523.2003.15.4.002
- [18] W. W. Hudson, G. J. Murphy, P. S. Nurius, "A short-form scale to measure liberal vs. conservative orientations toward human sexual expression", Journal of Sex Research, Vol.19, No.3, pp.258-273, 1983.
DOI: <https://doi.org/10.1080/00224498309551186>
- [19] A. P. Thompson, "Emotional and sexual components of extramarital rel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6, No.1, pp.35-42, 1984.
DOI: <https://doi.org/10.2307/351861>
- [20] S. J. Shin, "Effect of Individuals' Perceptions of Sex-role and Open Marriage on Individuals' Intention of Extra-marital Sex :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the Acceptance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and Moderation Effect of Gender",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7, no.3, pp. 199-211, 2017.
DOI : <https://doi.org/10.5392/JKCA.2017.17.03.199>

이 희 진(Hee-Jin Lee)

[정회원]



- 2011년 5월 :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영상제작 석사)
- 2016년 2월 :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영상학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한동대학교 언론정보문화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미디어분석, 영상사업